

내일의꿈

2021 신년간담회 | 담임목사님
교회소식 | 장로·집사·권사 은퇴 감사 예배
특집 1 | 2020 내일교회는!

특집 2 | 2020 성탄축하예배
추천도서 | “부활”, “피를 나눈 형제”
교회소식 | 2021년 신년특별기도회

#내일교회 #구독 #알림설정

내일교회

NAE-IL PRESBYTERIAN CHURCH



내일교회
구독자 2,79천명

구독중

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채널 정보



내일교회 2021-02-05 금요기도회 실시간 스트리밍
내일교회 • 208명 시청 중
일시 : 2021. 2. 5. 본문 : 삼상 30:1-20 설교 : 이관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 주일예배 일시 : 2021. 2. 7. 본문 : 사 40:1-7 제목 : 내가 지어내는 길이 설교 : 이관형 담임목사 35	• 주일학교 일시 : 2021. 2. 7. 본문 : 사 40:1-7 제목 :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설교 : 이관형 담임목사 15	• 주일학교 일시 : 2021. 2. 7. 본문 : 사 40:1-7 제목 :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설교 : 이관형 담임목사 21	• 주일학교 일시 : 2021. 2. 7. 본문 : 사 40:1-7 제목 :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설교 : 이관형 담임목사 26	• 주일학교 일시 : 2021. 2. 7. 본문 : 사 40:1-7 제목 :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설교 : 이관형 담임목사 5
--	---	---	---	--

주일학교(이사야 40-66장)
내일교회
업데이트: 1월 전
모든 재생목록 보기

주일학교(시편 120-134편)
내일교회
업데이트: 1월 전
모든 재생목록 보기

주일학교(야고보서 1-5장)
내일교회
업데이트: 1월 전
모든 재생목록 보기

주일학교(하나님 백성의 삶)
내일교회
업데이트: 1월 전
모든 재생목록 보기

주일학교(사사기 6-8장)
내일교회
업데이트: 1월 전
모든 재생목록 보기

수요기도회

일시 : 2021. 2. 3. 본문 : 눅 4:1-7 제목 : 부활의 설교 : 이관형 43	일시 : 2021. 2. 3. 본문 : 눅 4:1-7 제목 : 부활의 설교 : 이관형 35	일시 : 2021. 2. 3. 본문 : 눅 4:1-7 제목 : 부활의 설교 : 이관형 22	일시 : 2021. 2. 3. 본문 : 눅 4:1-7 제목 : 부활의 설교 : 이관형 25
--	--	--	--



사진 유승철 집사

Contents

내일의 꿈 2021년 1-2월(통권 289호)

- | | |
|--|--|
| <p>3 내일서신
이관형 담임목사</p> <p>4 2021 신년간담회 담임목사님
부서별 Key Word Question 버랑 끝자리가 기회의 자리!
정리 내꿈팀 김선영e집사
인터뷰 내꿈팀 장요한, 박민수, 강혜령, 김선영e집사</p> <p>9 캘리그라피
글·그림 263예친 황은파 집사</p> <p>10 나의 노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글 청년3부 김요한</p> <p>12 특집 1 2020 내일교회는!
부서별 최고의 순간</p> <p>24 교회소식 장로·집사·권사 은퇴 감사 예배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달려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정리 내꿈팀 장요한 집사</p> <p>26 은퇴 장로님과의 만남 신원하 장로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정리 내꿈팀 이은홍 집사</p> | <p>28 특집 2 2020 성탄 축하예배
성탄에 초대받은 사람들!
앞 뒤 좌우를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글 내꿈팀 김선영e집사</p> <p>30 추천 도서 1
성도님들은 부활의 삶이 일상속에서 일어납니까?
글 김태훈 목사(내일교회 행정 및 총괄, 예가부)</p> <p>32 추천 도서 2
피를 나눈 형제
글 장정아 집사</p> <p>34 신인 교역자 및 부장 소개
2021 새일꾼 인사합니다!</p> <p>37 소소한 일상의 묵상
#아버지 가 방에 계신다
글 내꿈팀 권지영 집사</p> <p>38 2021년 신년특별기도회
험악한 삶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 은혜
야곱 인생 여덟 단어!</p> <p>42 記者有感
“내꿈” epilogue 내일의 꿈팀 ○○○입니다!</p> |
|--|--|

내일의꿈 2021년 1-2월(통권 289호)의 모든 사진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 이전 사진이거나 준수한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관형 담임목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작년 말 코로나 재확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비대면 예배로 2021년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년주일예배를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해주셨기에 하루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현장 예배가 재개되길 바라며 특별저녁기도회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1월 20일(수)부터 현장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4일(주일)에 예결산공동의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도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기도과 헌신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가 되고, 대구와 열방의 빛이 되는 내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이사가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가 56장~5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가지를 마음에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에서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며(1~3계명),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4~10계명). 오랜 시간 영상예배를 드리면서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하

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둘째.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나아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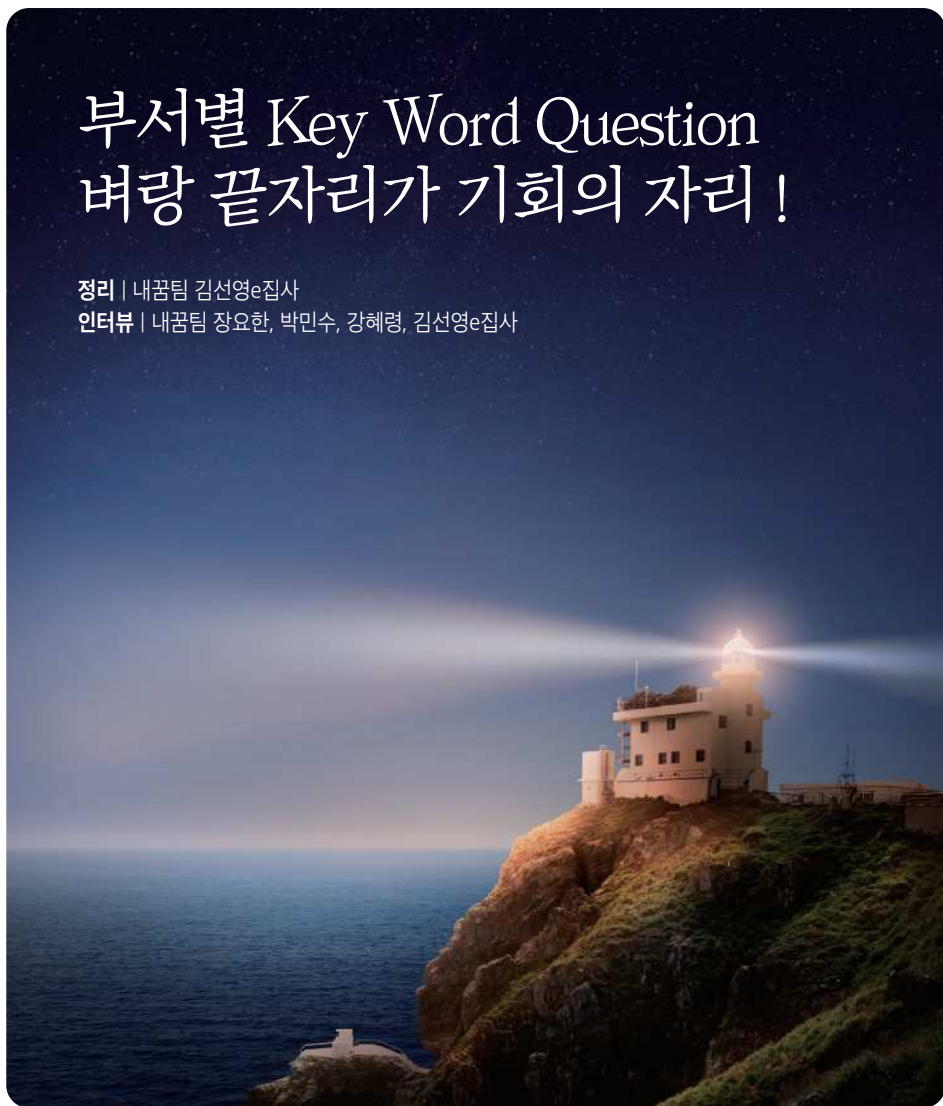
넷째. 헛된 위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돈과 쾌락을 보장해 주는 위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예배가 재개된 24일(주일), 주일예배를 드리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상한 심령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서별 Key Word Question 벼랑 끝자리가 기회의 자리!

정리 | 내꿈팀 김선영e집사

인터뷰 | 내꿈팀 장요한, 박민수, 강혜령, 김선영e집사



교회 폐쇄와 교회 인근의 확진자 증가로 겨울바람이 더 차게 느껴진 지난 12월 20일 주일.

하얀 마스크 숨조차 교환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내뿜고 삼키고 들이키며 신년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는 매년 담임목사님 또는 부목사님을 모시고 다가올 해의 사역방향을 듣고 지난 시간의 소회를 들으며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런 저런 질문을 던져 보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부서별로 목사님께 궁금한 질문을 아름아름 모아 찾아보았습니다.

Q. 목사님. 지난 1년 참 특별했고 영상으로 만 뵙는 분들도 많은데 인사 겸 근황 좀 들려주세요. 예배 인도 외에 다른 시간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올해는 마라톤 대회 못 나가신 거죠?



교역자들과 금요일에 한 번씩 여전히 뵈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집 근처 산에도 올라가고 혼자 계명대 캠퍼스도 뵈고 억지로라도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건강에 문제는 없습니다. 최근의 상황들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생기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다른 사역이 병행될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주간 2주씩 네 차례로 영상 진행된 특별기도회에서 요나와 엘리사를 따라가고 특새 동행 1,2편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사야서- 참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때 받은 메시지를 예수님 시대를 거쳐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까지, 방대한 시간을 해석으로 끌어오려면 참 많은 공부와 개인적인 소화의 시간이 필요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그 강해와 관련한 책 말고도 여러 다른 책을 주문해서 볼 시간도 생겨 최근 신학의 강조점이나 교회의 흐름도 조금씩 익히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백신개발만큼 어려운 교사모집? #코로나식 신앙지도란? #선생님 힘내요! #?!^^; #코로나 시대 청소년들에게

Q. 중고등부를 비롯한 교육부서에서 온 질문들에는 대체로 선생님들의 고민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사 수급의 어려움, 기존 교사들도 코로나 상황을 맞아 더욱 어려워진 신앙 지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다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그 공간의 교사와 성도님, 학생들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있다’, ‘교회가 지금 세대 문화의 웃도 좀 담으면서 청소년들이 교회의 문화도 공감하는 세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쭉 있어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교역자와 교사들 모두 인지는 했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감을 찾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올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은 만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교회가 그동안 이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얼마나 뒤처지고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볼



니다. 이 상황 때문에, 교회의 생존을 위한 강한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개발해야 했던 콘텐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전보다는 청소년 문화와 교회 문화의 간극이 조금 좁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목사 한 사람, 유능한 성도 한 사람의 스타플레이어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획일적인 리더십으로 해결하기보다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은사를 잘 사용해서, 천천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통하고 기획하면 이 또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까이 금요찬양팀('내일만 나')의 성장이나, 유치부 십계명 등만 봐도 참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은 될 수 있는 한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제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의 콘텐츠를 활용할 때 마음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작은 배려죠.

문제 상황과 마주하지 않으면 사람은 필사적인 노력을 미루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지금까지의 시스템 부족을 메꾸고 업그레이드 해야겠지만 우리 모두 틀을 깨려는 몸부림으로 이전보다 더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교사 분들 힘드시지만 버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획기적인 답을 찾으려 하거나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수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은사를 모아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청년부

#목사님의 MBTI? #올해의 마라톤은?
#LGBTQ, 기독교 윤리의식 #교회의 역할
#청년2,3부의 차이는? #내일 교회 미혼청년의
연애와 결혼 #진로 목표와 기도

Q. 사회와 학교 또는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서 기독교 윤리의식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역할 또는 정치적 사회적 입장의 선택과 관련해 방향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많은 꿈을 꾸지만 막상 뚜렷한 목표와 뜻이 없는 어린 청년들에게도요.



원칙에 대한 강조! 그로부터 외면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 교회가 건강하면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같이 가게 됩니다. '양극화'는 교회 안에서도 택일만을 강조하고 전혀 타협점을 찾을 수 없게 합니다. 누군가 중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바람으로 물리는 일도 많습니다. 죄지는 자 낮은 자 외면 받은 자에 대한 관심과 긍휼을 말씀에 대한 타협으로 정직하고 변절로 취급하는 폭력성보다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방성과 탄력성도 필요합니다. 저는 담임목사로서 바른길로 인도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양극단의 맞바람에 치여 숨 못 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있지만 서로를 다시 일으키고 세운다는 면에서 공존한다면 한 사람 개인의 역사적 경험과 인간적인 기호를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자기가 속한 곳을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자기비판 능력은 절대적 기준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클리어할 수 없습니다. 주장은 삶과 실제 삶과의 이중성이라는 기독교의 대표 이미지가 교회의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원칙을 강조하고 그로부터 외면 받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는 유연성을 가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길 바랍니다.

저한테 어느 문제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요구한다면 분열의 도화선이 되지만 한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가진 입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면 빛나는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설계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을 필요로 할 때가 많습니다. 응답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 내면을 다듬으시는 작업을 하시니까요. 1년이나 2년 정도 룬통의 기도로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인생 문제의 답은 일차 방정식 같은 단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 물어 가며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순장모임

#예친보고서 #순장의 세대교체에 대한 순장교육 시스템

Q. 올 한해 많은 예친이 갑작스럽게 영상으로 소모임을 하거나 1년 내내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으로 답답함과 초조함을 느끼시는 순장님들이 교회의 시스템이나 상황에 대한 궁금함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영상예배와 관련한 우려와 기대, 변화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공예배를 드리는 문화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크고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 개인적인 경험 이긴 하지만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누렸던 순간은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며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현장 예배만이 유일한 은혜의 통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면에서 순수성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지도자의 명령에 대한 순종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기도, 봉사에 대한 모든 제안을 개인이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면에서 그런 판단력을 키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역량을 구축해 줄 때 내적으로 더



탄탄해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장님들은 교회의 지도와 통제라는 시스템에 대한 기대보다 계속해서 순 원을 기다려 주고 그동안 구축해온 많은 신앙의 이해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자정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소망과 가능성을 확신시켜주며 함께 기다려 봅시다.

지금보다 더한 바닥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상황 안에서도 내일교회는 기본적으로 천 명 가까운 인원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고 미흡하나마 영상 소그룹 ZOOM 모임도 지방교회로서 보기 드물게 20~30퍼센트 정도가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해도 그간의 끈끈한 예친 중심의 모임과 연락망 구축으로 확진자 관련이 있으면 빠르게 파악해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움을 믿고 기다려봅시다.

Q. 끝으로 성도님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세요.

1. 이 순간에 충실합시다.

어쩌면 중요한 것을 지키고 불필요한 것을 버릴 기회가 지금인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 주일, 가족과 주변을 돌아보고 리프레쉬 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집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일상과 처한 환경을 소중히 여깁시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다룰 수 있는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평범한 일상도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곤하거나 험통하거나 그저 자신이 있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를 보리라 믿습니다. 기구했지만 그 환경을 견디고 살아낸 나옴이와 룯의 운명은 삼대를 거쳐 다윗이라는 자손의 탄생시켰습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 시기에 상황에 따른 호황을 누리는 틈새도 있고 성도들마다 처한 환경은 모두 다릅니다. 너무 비판하지도 말고 너무 안심하지도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면이 기쁜 자로 현실과 거리는 있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기쁘게 버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노력도 영원히 참될 수 없기에 어떤 격변이 있더라도 역사 앞에 겸손하며 이 모든 경험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어 봅시다. 극단적인 바닥을 경험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나 교회의 실패는 오지는 않습니다. **N**

두려워말라
내가네와함께함이라
놀라지말라
나는네하나님이되리라
내가
너를
구세게함이라
차원으로
너를도와주리라
차원으로
나의의로운손으로
너를부들리리-

이사야 41:10

©calliheart

글·그림 | 263예천 황은파 집사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글 | 청년3부 김요한

나의 노래? 처음 제의를 받고 고민했다. '과연 내가 이걸 써도 되는 것일까?' 사실 이렇게 고민하기도 전에 이미 내 손에 바통이 쥐어진 상태였다. '지금 이 글을 쓰지 않으면 언제 다시 써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다.

벌써 새로운 해가 다가왔다. 코로나로 한없이 신음하던 2020년이 지나가고 이제 백신도 기대해 볼만한 2021년이다. 2020년의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스스로 되돌아보면 그저 바쁜 일상 속에 치이며 살아가는 모습만이 가득했다. 코로나로 인해 '집콕'이라는 내가 방학 때나 할 수 있었을 법한 형태의 삶이 이제 학기 중과 방학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었다. 새로운 학기를 맞아 학교에서 새내기들을 만나는 것과 여러 행사와 축제를 기대했던 나로서는 참 적응되지 않았고 쓸쓸했던 날들이었다. 그렇게 매일, 매주, 매달 반복되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생활이 지속됐던 것이다. 그 가운데 죄로 가득한 시간 또한 보냈었다.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자각할 때도 있었고, 자각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때때로 '2021년에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 '이번 해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저렇게 살아가야지!'하면서

말이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 속에 다짐하게 만드는 찬양이 있다. 바로 아이작자식스티원의 '주님의 마음 있는 곳'이란 찬양이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이 가사의 고백은 곧 나의 고백이 되었다. 사실 쉽지 않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엔 벅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에는 때때로 놀라움을 느낀다. '정말 주님이 계시구나.'하고 느낄 때에는 온 몸이 전율이 흐른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내 삶은 죄로 얼룩져 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더 다짐하게 된다. 주님을 더욱 붙들기를,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기를. 죄인이지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나의노래는 우리의 가슴과 같아서 기쁠 때나 슬플 때, 감동을 받거나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 가슴 안에서 더욱 왕성하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시와 노래는 우리의 삶에 많은 곡절을 반주로 삼고 있지요. 내가 자주 부르는 나만의 노래에 스민 희노애락을 - 그 승화된 신앙 이야기를 내 삶 넘어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나의 노래'를 불러 볼까요!

다음은 후렴구이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후렴에서는 나의 마음과 삶이 주의 말씀과 나라를 통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할 것을 고백한다. 이 고백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길로 유혹이 되지 않을 때가 없다. 언제나 그 유혹에 시선이 이끌리고 그에 따라 죄를 지을 때도 많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고난에 힘겨워하고 항상 시험에 빠져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위 가사처럼 주님의 시선을 나 또한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

빛으로 표현되시는 주님의 시선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그 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라고 특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많은 것을 보고 계실 것이기에 감히 말할 수가 없으나 적어도 '거룩'과 '사랑'은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에게, 백성에게 원하시는 바일 것이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는 요즈음에 주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 슬퍼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에 그 분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

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기회 또한 주신다. 이러한 분의 시기에 '거룩'과 '사랑'에 바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셀 수도 없이 향했을 것이다. 주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인 나 또한 그런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기를 늘 소망한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금,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 그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이 말씀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이와 더불어, 내가 늘 간직하는 말을 남기고 싶다. 흔히, '될 사람은 된다.'라는 뜻으로 '될놈될'이란 말이 있다. 반대로,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 될 사람도 되게 하시는 분이다. 비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며 어려움에 맞서 싸워야 하지 않을까.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말이다.

불현듯 '주님께서 나에게 이 찬양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들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주님께 헌정이 감사하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는 모든 이들이 올해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시선과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곧 나의 노래이다. **N**



이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말씀의 백신으로 여전히 살아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분투했습니다.

교회는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택했고 부서마다 당황스러웠지만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기도 했고 당연히 해 오던 것을 어렵게 치러 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내일의 꿈>에서 매년 한 해의 행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아보고 추억하던 신년 특집 지면을 올해는 부서별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교회와 부서의 전통에 따라 이어져 오던 그리고 새롭게 꾸려진 인력으로 새롭게 구상한 행사와 월별 계획들이 늘 다채롭게 존재하던 내일교회지만, 올해 유난히 특수한 환경에 던져져 갖은 어려움들로 행사마다 여러 난관과 기다림을 경험했을 내일교회 소 공동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이, 부서 공동체를 통해 교회 전체를 신실하게 끌어주시고 내일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일하심을 부서별로 선정한 '최고의 순간'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만은 최고의 순간 최고로 기억에 남는 시간과 장면 속으로 다 함께 가시죠.

최고의 마스크

글 | Alla Ly 집사



저희 로사팀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CIS국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포네이션 부서의 팀입니다. 한국에 비해 CIS국가에서는 마스크를 쓰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많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찬송가를 부를 때나, 한국어 공부시간에도, 그냥 커피를 마실 때에도, 우리 팀의 아프썸 생일 축하 자리에서도, 발라 어머니의 환갑잔치에서도, 또 회사에서 손을 다친 엘비라에게 병문안을 갔을 때에도, 7명의 로사팀 사람들이 성경필사 상을 받았을 때에도, 그리고 매년 추수감사절에 즐겁게 식사를 했었지만 올해는 마스크를 쓴 채로 보냈을 때에도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도 모일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최고의 마스크가 아닐까요?

사랑부

2020년 사랑부 가족수련회

글 | 양경애 집사

사랑부 2020년 즐거웠던 순간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2월 사랑부 가족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얼굴을 보며 함께 식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기에 더욱 귀하고 그리운 시간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이처럼 정답고 가슴 찡한 말이었군요.

사랑부 교사들과 가족들은 발달장애지체들의 구



원을 위해서 지붕에 올라 가 기와를 뜯어내어 예수님이 계시는 안으로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 내렸던 친구들처럼 그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던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올해도 2월에 영상으로 겨울수련회가 열리는 데 참가하려는 사랑부 가족들의 열기가 벌써 뜨겁습니다.

라파부

2020년 예배 및 교제 재개의 순간

글 양해섭 목사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점심식사 이후 모이는 라파부 사역 예배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지체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자 많은 지체들과 봉사자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잠시 수그러들었던 6월, 라파부는 주일 오후에 모였던 사역예배를 토요일로 잠시 옮겨서 모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의



4개월 만에 다시 보는 지체들의 모습에 많은 봉사자들과 지체들은 기쁨으로 인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이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감사의 제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코로나 확산이 심해져서 토요일 모임도 가질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오는 2021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라파부서의 이름과 같이 이 땅을 고치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아부

추수감사주일 헌물예배

글: 교사 이경아 집사



※영아부 대표 교사들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기 (오랜만에 준비하느라 팔다리가 후들거렸던...)



※바구니 하나하나에 영아부 아가들의 이름을 적어 향기로운 과일과 채소를 담아 올리기



※영아부 엄마.아빠와 함께 강대상에 올라가 감사찬송 드리기

2020년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영아부는 영아부실에서 헌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반기때 부활절을 가정예배로 드려야 했다면 하반기 추수감사절만큼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내일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린 추수감사주일 헌물예배!

스무 명 남짓한 믿음반 4세 형님들과 누님들이 후배 아가들이 보는 앞에서 아벨처럼 가장 예쁘고 탐스러운 과일이나 채소를 골라 담아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며 “사과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영아 때부터 작은 과일이나 채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배워갑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 많은 믿음반 아가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더 많은 후배 아가들이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지 못해 아쉬웠지만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게 많은 아가들이 참석해서 더욱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고백과 감사 찬송 올리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많이 힘든 한해였는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찬송을 쉬지 않는 영아부 가족들과 아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유치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사역 활성화

글 이정화 전도사

1. 매일 5분묵상: 유튜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사역입니다. 아이들과 매일5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사역입니다.

2. 공과공부: 소모임 규제로 인한 반별 공과공부를 할 수 없었기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매주 1번의 공과영상을 업로드 함으로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역입니다.

3. 말씀암송: 매주 1절의 말씀을 손 유희를 통하여 아이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든 사역입니다.

4. 십계명 암송: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오프라인 암송 사역 후, 마지막 십계명 사역은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며 배울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5. **여름성경학교:** 주일학교 부서가 마음 모아 함께 제작하여 진행한 사역입니다.

6. **성탄절묵상:** 성탄절이 다가오는 주간에 5일 간 매일 1개의 영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자세히 알아가며 아이들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7. **제자훈련:** 오프라인 제자훈련이 1주 만에 닫히게 되어, 온라인으로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유년부

드라이브 스루로 전반기 시상식

글 | 부장 손민욱 집사

올해 유년부도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만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협력하여 잘 달려온 거 같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실시간 영상예배가 시작되면서 현장예배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월별 예정된 행사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방법을 도입하여 전반기 시상과 어린이날 선물 등을 전달하며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일면식도 없는 학부모님들이 계셨지만 선물을 건네며, 짧은 시간이지만 인사 나눈 생각이 납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함께 기쁘고 보람된 시간이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년부는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어린 친구들이 소속된 부서입니다. 늘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이 사역에 교사로 섬겨주실 수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항상 열려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초등부

롤링페이퍼 성경골든벨

글 | 부장 오천석 집사

함께 모여 예배드림의 소중함을 느꼈던 2020년은 온라인으로든 현장에서도 예배드리는 순간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초등부에서는 롤링페이퍼와 성경골든벨이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주일 롤링페이퍼

어린이주일이지만 만날 수 없는, 보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

를 적은 롤링페이퍼. 분반공부 교재, 어린이주일 선물과 함께 전달된 롤링페이퍼를 보고 많은 친구들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코로나도 막지 못한 성경골든벨의 열기

친구들을 불쌍히 여겨 미리 예상 문제를 배포한 목사님. 또 친구들은 코로나로 인해 강제 집콕을 했으니 모두 성경공부를 열심히 했나 봅니다. 성경골든벨 열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열기를 미리 감지한 부장샘이 선물을 많이 준비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중등부

2020 잊지 못할 첫예배와 겨울 수련회

글 | 정승민 목사

2020년도 첫 설렘을 안고 시작한 첫 예배, 이때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닐 것 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때인 것 같다. 사실 중등부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은 패서니스타(본래 중등부 친구들이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뭔가 특별하고 약간 잘나가는? 친구들만 쓰는 아이템인데)들만 하는 것이라 마스크를 쓰고 예배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날이 가장 그림고 감사했던 날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날은 첫 예배의 시작이기에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긴장되게 했다. 새로 올라온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의 수줍은 미소와 긴장한 듯한 첫 예배, 새롭게 시작하는 성가대의 찬양, 설렘. 그날을 잊지 못한다. 마스크 없었던 첫 시작, 첫 예배, 설렘의 첫 예배가 아마도 중등부 최고의 순간인 것 같다.

중등부 신앙의 꽃이라 불릴 수 있는 상반기 겨울 수련회. 한해를 시작하기 전에 믿음을 바로 세우고 은혜받기 위해 뜨거운 찬양과 깊은 말씀에 집중하며 참여했던 시간들이었다. 중등부 시기도 공부와 학원 때문에 믿음 생활을 집중한다는 것이 수련회에 참여한다는 것도 사실 불투명하다. 그런데 시간을 내어 참여해준 친구들이 자랑스럽고 말씀과 찬양으로 수련회기간 믿음으로 세워지는 친구들을 보며 감격스러웠다. 솔직히 조건이나 여건을 따졌을 때는 부족한 점들이 많았고 불편할 점들도 많았다. 수련회 장소가 멀리 경기도 지역에 있었기에 가는 것도 어려웠고 잠을 자는 것과 씻는 것, 방을 여러 명이 써야하는 것, 집회장소와 숙소도 멀었으며 밥을 먹어야 할 때는 오래도록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번거러움도 있었다. 생각해보면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아이들이 그런 와중에서도 ‘은혜를 받으니 모든 불평, 불만들이 감사로 바뀌고 괜찮아요.’라고 쿨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핸드폰 없이는 하루도 지내기 어려운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핸드폰 없이 모든 시간동안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 줘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고 중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노력과 참

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교회 주변에서 영상을 찍으며 예



'사복음서 성경통독'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세요~					
김다솜	등인우	이지후	김하늘	배예현	공은지
김형진	권세람	김은경	임선진	임선을	박성빈
이소은	이하은	임중호	장민성	최예린	윤예은
김다은	이준희	홍찬민	박혜진	신희찬	박은별
임민규	이하부	이주하	고예린	내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코로나도 막지 못한 말씀의 향연

글 부장 정규용 집사

배의 한 부분을 담당했던 찬양팀 친구들. 미리 영상녹화로 찬양대 영상을 담아준 친구들이 최고의 모습이었습니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자칫 소홀할 수 있어서 다양한 미션들을 진행했습니다. (사복음서통독, 잠언성경쓰기, 부활절 사행시, 효도챌린지, 온라인 묵상지나눔 등)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미션들을 잘 참여해주고 경건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중등부.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중등부 시기는 어렵고 힘들고 소통하기 힘든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조금만 터치해 주고 공감해 주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감 속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분반공부를 하게 될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놓인 중등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볼 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이들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순간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바뀌는 RENEW중등부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모든 것을 삼켜버린 한해였습니다. 고등부 또한 준비하던 하계수련회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배(특강듣기), 말씀(읽기, 쓰기), 기도(공동체와 자신을 위한 기도), 교제(말씀챌린지)의 내용으로 준비하여 핸드북을 만들고 우편으로 발송하여 각자 처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백미는 마지막날 교제파트로 진행된 말씀 챌린지였습니다. 단체톡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을 초청하고 최초 선생님이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을 톡으로 나누고 다음 나눌 사람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말씀 나눔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할지 염려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기는 더해 가고 연락이 닿지 않던 아이들 까지 참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 예배 출석인원의 90% 이상이 참여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올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감사했고, 참여한 아이들 한명 한명이 은혜였습니다. 코로나도 막지 못한 말씀의 향연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은 목사님의 커피를 타고

청년1부 부원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며 언제쯤 현장 예배가 회복될까 기도하며 기다리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공동체의 사랑이 참 그리웠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갑자기 담당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직장으로 방문을 해도 되냐고 잠깐 전 해줄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교회를 다녔지만, 담당 목사님께서 직장으로 찾아오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내려가니 목사님께서 한 손에는 커피와 한 손에는 빵 봉지를 들고 반갑게 서 계셨습니다. 순간 너무나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짧은 대화로 안부를 묻고 돌아가셨지만 목사님께서 저를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양 손 가득 주신 간식을 받아오는데 직장 동료들이 누가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커피랑 간식이랑 전해주시고 가셨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 “너무 좋은 교회 다니다. 목사님이 직장까지 찾아오신다니.” 하며 한 마디씩 말하였습니다. 자리와 돌아와 열어보니 귀한 말씀 카드도 있었습니다. 왠지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나처럼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생각에, 어께 으쓱! 자신감 뽐뽐! 되었답니다. 청년1부 많은 지체들이 이 직장 심방을 2020년 최고의 순간으로 뽑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1부는 올해도 보이지 않는 지체들의 집이나 직장으로 또 한 번의 깜짝 심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지체들의 마음이 따뜻한 커피처럼 사르르 녹아서 공동체를 기억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산돌의 꿈

글 청년3부 김은송

‘산돌의 꿈’은 매년 공동체를 여러 방향으로 섬기는 6명의 선장들을 새로 세우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올해 벌써 세번이나 대면 예배가 멈춘 어려운 한 해 가운데에도 다행히 안정된 시기를 주셔서, 지난 10월 25일 15대 선장들이 새롭게 섬김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3자로서만 3번의 산돌의 꿈을 봐왔습니다. 산돌의 꿈을 통해 선배들이 섬김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계획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1년을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이 멋져보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제가 그 산돌의 꿈의 당사자가 되어 선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를 꽤나 치열하게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고민의 시간을 통해, 섬김이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나를 채우는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하심,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열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 15대 선장들은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지체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의 달려 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정리 | 내꿈팀 장요한 집사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실시 전날인 12월 23일(수), 극적으로 장로·집사·권사 은퇴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방역 지침 준수로 다소 조용한 은퇴 감사 예배였지만 교회를 향한 떨리는 고백과 무심히 떨어지는 눈물은 오랜 섬김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말해주기에 충분했다. 담임 목사님의 “은퇴, 새로운 시작”(사무엘상 12장 23-25절) 설교 이후 장로·집사·권사의 은퇴 공포가 이어졌다.

“내가 이제 신원하 장로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내일교회 은퇴장로 된 것과 이병태, 김덕기, 이동희 장립집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내일교회 은퇴장립집사 된 것과 신설이, 백은주 권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내일교회 은퇴권사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아멘-”

이성식 원로장로님의 권면과 최영택 장로님의 축사 이후 신원하 은퇴 장로님 답사가 이어졌다. 신원하 은퇴 장로님께서 “15년 전에 이곳에서 장로 장립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다시 장로 은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며 비록 은퇴의 자리이지만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말씀으로 받아 더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셨다. 이어서 김덕기 은퇴 집사님께서 “눈



물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며 주님과 교회를 향한 감사 인사를 드렸다. 마지막으로 신설이 은퇴 권사님께서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 목사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며 은퇴 소감을 밝히셨다. 이동희 집사님과 백은주 권사님은 개인 사정으로 은퇴식에 참석하지 못하셨다.

해질녘 황혼의 오색 노을을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저무는 태양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은퇴하는 자리이지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을 감사하며 축복할 수 있는 것도 그 섬김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래도록 교회에 미칠 것을 알기 때문이라. 거칠고 험난한 시절을 오로지 교회와 함께 걸어오시며 남은 힘마저도 교회에 떨구셨지만 신새벽 눈부신 태양처럼 그 섬김과 헌신이 다시 빛으로 일어날 것을 기대해 본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그 위대하고 명예로운 섬김을 축복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된 눈물은 교회의 씨앗이 되어 열매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될 새로운 부르심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내일교회 신원하 장로



정리 | 내꿈팀 이은홍 집사

1.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릴 때 고향 교회의 주일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미션 스쿨에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직장 근무하면서 시작했는데, 동료가 구원파 사람과 언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다못해 옆에서 말을 걸었는데, 이 광경을 보던 신실한 친구가 ‘교회 다녔던 사람이 왜 교회에 다니지 않느냐’며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3주 연속 매주 토요일 오후에 성경과 찬송가를 흰보자기에 싸와서 펼치며 끈질기게 저를 교회로 다시 나오게 하려고 노력하였는데, 마침 직장 숙소 옆에 있던 교회에 다시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어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내일교회는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노회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에 참가하였는데, 그 때 주강사로 오신 내일교회 목사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명품과 제품의 차이”라는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아 내일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들을 등·하굣길에 데려다 주면서 내일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 여기가 그곳이구나.’, ‘내가 평생 다닐 교회구나.’라고 느끼게 되었고, 내일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3. 내일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십니까?

가장 열심히 일할 젊은 시기에 내일교회로 와서, 나의 모든 힘을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고 고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등부 교사, 부장으로 계속 섬기게 되었는데, 부장으로 있던 2001년 고등부 수련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때 고등부 담당이셨던 목사님(당시 전도사)과 여름 수련회를 어디서 할까 기도하는 중에 일본 비전 트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박 3일간 고등부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더 큰 비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비전 트립을 계획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고3 남학생들의 군 입대 나이 문제로 비자 발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행사 티켓팅 등 쉽게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안전 등으로 인해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과 과정들을 인도하시고 아이들 한 명까지도 보살펴 주셔서 일본 해외 비전 트립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박 3일의 짧은 수련회였지만 고등부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 부족한 저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장로로서 시무하시는 동안 가장 보람되거나 아쉬웠던 일이 있으십니까?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단에서 기도하며 교회의 전반을 보며 섬길 수 있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항상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사역인 지하철 전도를 하며 지하철 대원들과 신앙의 기쁨을 나누며 한 사람의 새 신자가 생겨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일로 섬길 기회도 많았는데,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며 어려운 교회

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작으나마 기도로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교회 밖의 여러 일로 봉사하면서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과 교재하며 신앙의 폭을 넓힐 수 있었음은 더욱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내일교회 장로이기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였음에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당회와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5. 장로 은퇴 후에 특별히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늘 기도하며 꿈꾸었던 선교에 대해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꿈은 잊지 않고 있기에 직접 가서 섬기는 일은 아직 모르겠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과 외국인을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돌아보며 섬기며 그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마음에 비해 지금까지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자주 만나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6. 내일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도로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며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싶다가보다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매일 하나님과 첫 시간을 교재하며 하루에 잠시나마 성경 한 절이라도 읽으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인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시 69:30)를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 **N**

성탄에 초대받은 사람들! 앞 뒤 좌우를 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글 | 내꿈팀 김선영e집사

올해 성탄은 금요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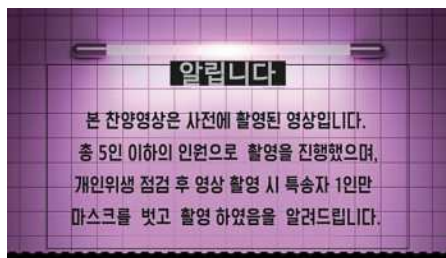
금토일 연휴의 안일함도 세상이 포장한 휘황찬란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없어진 대신 우리 마음에 진짜 아기 예수님을 모신 경건하고 벅찬 시간이 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초반의 급박한 상황을 겪고 안전지대라 자찬하던 대구도 2단계와 2.5단계를 앞둔 사회적 격리로 교회의 모든 연말 행사는 조용한 가운데 치러졌고 성탄예배도 유례없는 영상예배로 드리게 되었네요.

화려한 칸타타 대신 소박한 특송

성탄절 아침 영상예배 채널을 맞추고 진행을 따라가다가 설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음을 울리는 특송이 있었습니다. 까만 드레스가 구주가 나신 그 밤을 노래하는데 그 느린 선율에 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차분한 기쁨이 몰려오던지. ^^

가정에서 다른 환경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현장에서 소수이지만 예배를 진행하는 사역자들과 그리고 이렇게 사전에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들과 그 과정들을 모두 하나로 여기 이 자리와 이 시간에 모아주며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만삭의 마리아와 요셉을 환대한 무명의 한 사람을 발견하다!



예수님의 탄생과정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그려야만 극적이었던 것인지, 그 분의 탄생 장면은 그 죽음의 혹독함에 조금 묻혔을 뿐이지 역시나 너무나 비참하게만 그려졌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50킬로를 만삭의 몸으로 가는 여정, 갑작스러운 산통, 타지역 사람들의 외면, 가족이 사는 마구간에서의 잉태 - 여자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 봤다면 정말 대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꼭 그래야만 했나 싶은.

그러나! 올해 성탄절 말씀은 이전의 말씀의 전례 시간보다 두 배나 할애된 시간으로 정말이지 그동안의 이미지와 상식을 깨는 재발견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간 중동지방을 머물며 성경을 연구 관찰한 케네스 E. 베일리(Kenneth E. Bailey, 1930-)의 해석을 소개해주는 담임 목사님 설교는 듣는 내내 흥미진진했습니다.

마리아 부부는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위해 어느 집을 급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한 집에서 기거했다가 진통을 맞았다는 사실, 호적하는 시기가 집집마다 만원이 되어버린 게스트룸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구유'는 가족의 여물을 두는 더러운 장소가 아니라 고대 중동 보통 시골집 가족방의 한 낮은 공간으로 식구와도 같은 가족이 밤의 추위를 피하고 먹을 것을 두는 일상의 배려가 있던 자리라는 사실 등.

유명한 신약학자의 오랜 연구라서 무조건 믿어서가 아니라 2천년도 넘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정말 의미 있는 해석인 것 같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격변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부부를 위해 자신들이 머무는 개인적인 처소를 제공한 그 무명의 한 사람, 그의 따뜻한 친절과 환대가 성경의 해석 속에 보이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다!

이 상황이 때론 버겁고 때론 무덤덤해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평범한 것들 속에서 알지 못했던 의미와 은혜를 발견하고 참된 평화를 얻어 봅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따뜻함을 발견하고 만왕의 구주임을 깨닫는 평범한 목자의 기쁨이 임하도록!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눅 2:10-12)

성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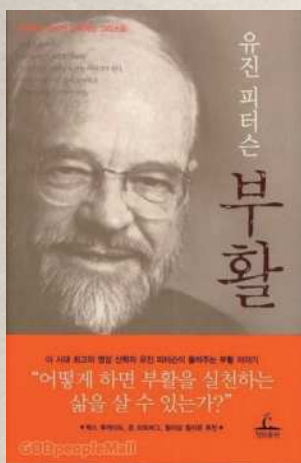
성도님들은 부활의 삶이 일상속에서 일어납니까?

유진 피터슨의 “부활”

저자: 유진 피터슨 출판사: 청림출판사



글 | 김태훈 목사
(내일교회 행정 및 총괄, 예가부)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의 꿈 담당자로부터 “내일의 꿈”에 좋은 책을 소개하는 파트가 있는데, 책 한 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무슨 책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담임목사님께 “얹고 좋은 책 없어요?”라고 여쭈어보았는데, 이 책을 소개해주셨다.

어떤 책일까 매우 궁금했다.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저자가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이 무엇일까?”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 나에게 계속 되 물었다.

저자가 “부활”이라는 책을 쓴 동기는 분명해 보였다. 저자는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여전히 교회와 개인의 삶에서 찬 밤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저자는 크리스마스(성탄절)은 세상적으로 상품화도 많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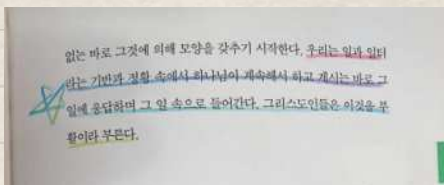
어 있고, 교회에서도 전야축제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떠들썩하게 기념하지만, 상대적으로 부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 또한 12월 첫 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성탄절을 기다리며 설렘과 함께 시작하지만, 상대적으로 부활절은 바로 앞에 고난주간이 함께 있어서 그런지 부활절을 설렘으로 기다리지는 않는 것 같다.

그것은 아마 성탄절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은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어쩐지 의미 있게 느껴지지만, 부활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정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삶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 닿지도 않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도 사

실이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것 같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저자는 정작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가져왔음을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부활의 사실을 일상의 삶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예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 다른 아닌 일터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다”(p. 54)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부활의 역사가 “안식 후 첫 날”에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부활의 경험자의 대부분은 유대인)이 일상으로 돌아간 첫 날에 부활이 일어났고, 부활을 처음으로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상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자는 이 부분에 큰 강조점을 두면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속으로 들어와서 계시는데,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른다고 말한다.(p. 63).

저자는 일상의 삶으로 부활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나게 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식사의 자리로 부활을 체험한 자신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식사라는 것은 어떤 설정된 무대가 아니라, 단순한 일상



의 삶의 한 부분이고, 거기에서 부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가운데, 문득 드는 생각은 내가 AD

25~35년 사이에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한 명의 유대인이었다면, 분명 죽으시는 장면이 아직도 삼 일 전에 또렷이 기억 속에 있는데, 정말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오셨다고 한다면, 난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아마 나 자신도 장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저자는 이런 부분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모두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저자는 이 부분을 “선물”과 같다고 기록한다. 일상생활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값없이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 후에 저자는 이런 선물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그런 선물을 받을 자들이 어떤 지적능력이나, 심지어는 특별한 신앙의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저자는 전문가 또는 영적 엘리트는 없다는 표현을 사용)는 사실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부활의 역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는 것처럼, 일상이라는 삶에서 늘 체험되는 신앙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이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귀결되는 역사가 부활 그 자체라는 사실을 말한다.

어느 누군가 말하기를, 모든 인생의 결말은 비극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자의 “부활”이라는 책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삶의 결말은 비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모든 삶의 결말은 “생명”이라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 되어진다면 말이다.

또 다시 나에게 이 질문을 던져본다. 오늘 나의 일상의 삶에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전히 자신 있게 Yes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나... 그 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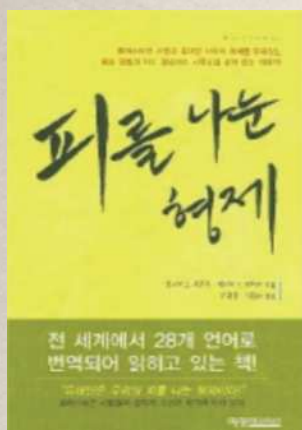
피를 나누는 형제

저자: 엘리야스 샤쿠르, 데이비드 해자드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글 | 장정아 집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책을 읽고 생각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다른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디에 시선이 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교육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1. 우리의 시선..우리의 판단

팔레스타인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전에 미국의 911테러에 테러리스트의 출신에 대해 뉴스에서 들었을때..가담한 세력 중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들은적이 있다.

그저 테러집단..그리고 끊임없는 분쟁지역에서 거론되었던 그 민족..적어도 내 기억엔 팔레스타인은 그리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엘리야스 샤쿠르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이 책을 읽어내려가며..우리의 시선은 강대국,강자의 시선에서 판단된 것이었음을 알수있게 된다..

그들은 왜..911테러 사건에 연루될 수 밖에 없었을까..테러가 정당화될순 없겠지만..적어도 왜..라고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

2. 하나님의 방법

유대인은 독일 나치즘에 의해 무방비하게 학살당하고 핍박받았다. 나치즘 시대가 끝나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민족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무단 침입하고 강탈하였으며 학살하기도 하였다..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고 많은 강대국들과 주변 국가들은 묵인, 방조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며 자신들이 당했던 방법으로 형제의 민족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였다.과연 하나님의 방법이이었을까.

3.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신앙인, 외교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평화로 화합하는 데에 일생을 바친 샤쿠르 신부의 부모님은 입술로가 아닌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신 믿음의 부모였다.

유대인이 가족들의 거주지와 과수원을 강탈했을 때조차 유대인은 형제이므로 사랑해야한다는 가르침을 한결같이 고수했던 믿음의 부모..그 그림자를 보고 자란 샤쿠르가 평화의 대사가 되는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녀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수하고 있는가..

이 책을 읽으며 내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것을 느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시선은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곳.그리고 가난한자 핍박받는자를 향해 있는가.

그들을 대변하고 있는가..

많은 질문을 남기며 결코 가볍지 않은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코로나19의 어둡고 힘겨운 시간을 전세계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갈등과 분열이 분분한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서 울림이 있는 책이기에 많은 내일교회 성도들이 읽고, 작은 삶의 일부에서라도 도전받고 은혜받길 간절히 기도한다. 

2021 새일꾼 인사합니다!

신임교역자

영아부 박희주 전도사

내일 가족들에게 먼저 웃음
으로 인사드립니다.

영아부에 부임한 박희주 전
도사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
른 시간에 강가를 거닐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그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채
워가는 한 해로”

어린 아이처럼 마음에 기쁨이 솟았습니다.

내일에서 첫 예배를 드리던 날, 약속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걸
음 한 걸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발걸음을 옮겨가리
라 다짐해 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을 거부하고
자신과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
아 가고 있지만, 다음세대의 기초를 세워가는 부서
인 저와 영아부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
합니다.

선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일교회 좋지요?” 제가 내일교회를 많이 사랑
하면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 기도제목**
1.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지런히 섬길 수 있도록
 2. 내일교회 영아부가 말씀으로 평안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도록
 3. 믿음의 인격화와 신앙전수의 기초를 다지는 사역이 되도록



신임부장

중등부 정현 강도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부터 중등부를 맡게 된 정현 강도사입니다. 벌써 내일교회에서 사역한 지 3년째가 되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기존에 담당하던 찬양사역과 신혼부, 내일플러스와 함께 중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등부를 맡는 것이 결정되고 나서 중등부 친구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기대와 설렘을 주셨습니다. 하루 빨리 중등부 친구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대에 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재확산이 심해지면서,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의 첫 만남을 유튜브에서 가져야 했습니다. 하루 속히 현장에 서 우리 친구들과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사역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사역에 임하는 저의 목표이자 기도제목도 이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글을 읽으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중등부를 위해 기도해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아부 이상대 집사

최근 들어 두 개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선 코로나19 대응팀, 교회에선 영아부입니다. 대응팀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좀 대들었습니다. ‘왜 하필 저를 여기에 부르시나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매 상황마다 해결자가 되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넘 바빠서 영아부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영아부를 통해서도 더욱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 안에서 더욱 넉넉히 채워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또한, 영아부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잘~했어요!’ 서로 격려하며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아부 교사샘들과 부모님, 모든 분들 2020년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유치부 부장 이재우 집사

반갑습니다. 유치 1, 2부 통합부장으로 섬기게 된 이재우집사입니다.

“은혜가 흘러가야 하듯 섬김의 자리도 흘러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몇 년 동안 정들었던 포넬 이션을 떠나 올해부터 유치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와 교회문화가 시대의 주류였지만 어느새 세상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눈치 주고 이방인 취급하는 상황을 보면서 교육부서를 회피하고 싶었던 연약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마지막 세대는 좌절과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였고 일당백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저 또한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이 주목하는 담대한 아이들로 자라서 마지막 세대에 각자의 모습대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자이신 예수님을 닮아 온유함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는 믿음의 어린 용사, 우리 유치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부 부장 양경애 집사

샬롬^^~2021년 사랑부 부장으로 섬기게 된 양경애집사입니다



처음 내일교회에 사랑부 아이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때는 유치부였네요) 예배에 갈급해하시는 부모님들께 맘 편히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을 돌봐주려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랑부의 표처럼 세상을 복되게 하고, 내일교회를 복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는, 복덩이 블레싱 사랑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동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은 사랑부 지체들이 사랑부에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찬양을 통해 기쁨이 넘쳐나기를, 세상의 편견과 오해로부터 자유로움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며 세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히 부모님들과 연합하여 장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 한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소소한 일상의 묵상

♣아버지 가 방에 계신다

글 | 내꿈팀 권지영 집사

자꾸만
어깨가 ...
발걸음이....
가방이
무겁다.

하지못한 숙제들과 당장 쓰지는 않지만
혹시해서 넣어둔 잡동사니들로 가득차 있다.
필요한 것이 있어 가방속에 손을 넣어 훑었다가
내 모든 것이 무거웠던 이유를 찾았다.

가방속과 머리속이 같았다.
항상 함께는 다녔는데 짐처럼 메고 다녔고
필요한거 있을때만 아는 척 친한 척 했던 아버지였다.

내 아들들이 엄마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한다면 ...깜짝하겠지.
올해는 반성모드로 시작한다.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딸 도이겠습니다.
방에서 나오세요~ 잘 모시겠습니다!!

+ 자녀들이 우리가 말고서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18) N



험악한 삶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며 넘어지고 일어서고 분투했던 신앙 선배들의 자취를 따라가는 신년 특별 기도회! 이번에는 '야곱'입니다. 내꿈에서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 신년의 마음 준비를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몸으로 함께 할 수 없었지만 야곱과 관련한 2/3/4행시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마음으로 기도회에 함께함을 인증해 주시고 마음과 관심을 나누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도하던 그 순간처럼 새해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기도합니다.

야곱 인생 여덟 단어!
**야곱 베엘 헤브론
브니엘 쌍둥이
씨름 언약 라헬
압록 레아**

야!! 니가 사랑을 알아?

곱 씹어 봐도 그런 사랑은 없었어. 한 번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던 하나님 그 분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여름-홍수로 물이 범람하던 그때 그분을 만났습니다.

별 기대 없이 따라간 고등부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거든요.

넉(역)시 난 쓸모없는 존재라고 삶의 끈을 놓으려던 그때였지요.

기적처럼 하나님은 상처 난 그 소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도무지 인간의 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그 날을 잊을 수 없지요. 다시 시작! **Again!특별저녁기도회**

압 삽하고 꺾 많은 아굽 같은 우리라도 ! 연약하심
미리아신 우리 주님!

복 주마. 함께 하고 도와 주마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나는 표리부동했고 세상 유혹에 무수히
패배했어도

루:(누)누히 용서하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널 난 부끄러워하지 않아."

압!!!

복의 근원 하나님께로

나 너 따지지 말고 모두 함께

루울루랄라 찬양하며 나아가는 2021년 됩시다.

압!아~~~압

복을 주노라.

나로 인하여 너희에게

루저 아닌 승리자가 되게 하리라.

압삽하게

복을 받았던 아굽은

나중에

루스(벨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압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 되다.

압!!!새해

복 많이 받아.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으니

루테인이랑 비타민 꼭 챙겨 먹어♡

언 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늘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언 제나 성도는

약속의 말씀 붙들자

언 제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약속해요 코로나 19 없는날.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언 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게
말씀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언제까지고 바라고 기다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였던가? 항상 되뇌이게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저의 이름을 고쳐주시며

언제쯤 코로나가 끝날까요? 하나님.. 다시
코로나는 없을 거라고

악속해 주세요!!제발~

언니~~

악속의 하나님 같이 믿자

힘한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악인이 가득찬 세상일지라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통해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헤아~호! 주의 은혜로

브~얼써

론칭! 내일교회 신년기도회!

야무지게 맘 먹고

곱절의 은혜 사모하며 말씀을 기다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일교회에 열두 제자들과 방
문하신 예수님. 내일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계단으로 가려다

벤드르야. 무릎이 안좋구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자. $\pi\pi$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

레위기와 신명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pi\pi\pi$ 잘 안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주님

악속하신 대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쌍꺼풀 수술을 하고

등실둥실 춤을 추며 집에 와서 보니

이럴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판이 났네!

야수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 주님의 은혜가

곱으로 필요합니다~

야심한 밤 4일 저녁에 진행된 신년기도회에

참여 못하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가

곱절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꿀잠자네요.♡

야곱의 간사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곱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네.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교회가자!

곱절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러!♡

야~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곱빼기로 주시나보다!!

레몬처럼 톡톡 튀려고 버둥거리는 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며 소금처럼
맛을 내라 하시네. $\pi\pi$

벤엘의 하나님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엘리베이터는 없었지...그땐ㅋ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아 빠진 야곱도 고치시는 하나님
씨유 어게인 ~오늘은 축 쳐진 어깨——
름(느)름한 모습으로 ~내일은 이팅!!

씨? 너는 무슨 씨앗인데? 겨자씨.. 걱정마~
름(느)름하게 자랄 나무가 될터이니~!!

언제나 변함 없으신
약속의 하나님
브라보!
니시 여호아!(승리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압압압!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루(누):누리며 순종합시다.

언덕 위에 올라와 본 모세
약속의 땅이 보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네~

라라랄~하며
헬스장만 가지마라 코로나조심~!

압삼하게
복만 받을라 하지 마라.
나도 모르게
루시퍼 뚫아간다.

헤어진 옷과 곰팡이 핀 떡 가지고
브르르 떨며 기브온 거민들
론(논)팬이처럼 여호수아 찾아 갔다네~^^
야무지게 외우라.
곱디 고운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벤엘로 올라가야.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씨앗이 섞어야 새싹이 난다.
름(느)름한 모습으로~^^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곱절로 더 끈질기게 나를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레아는 몰랐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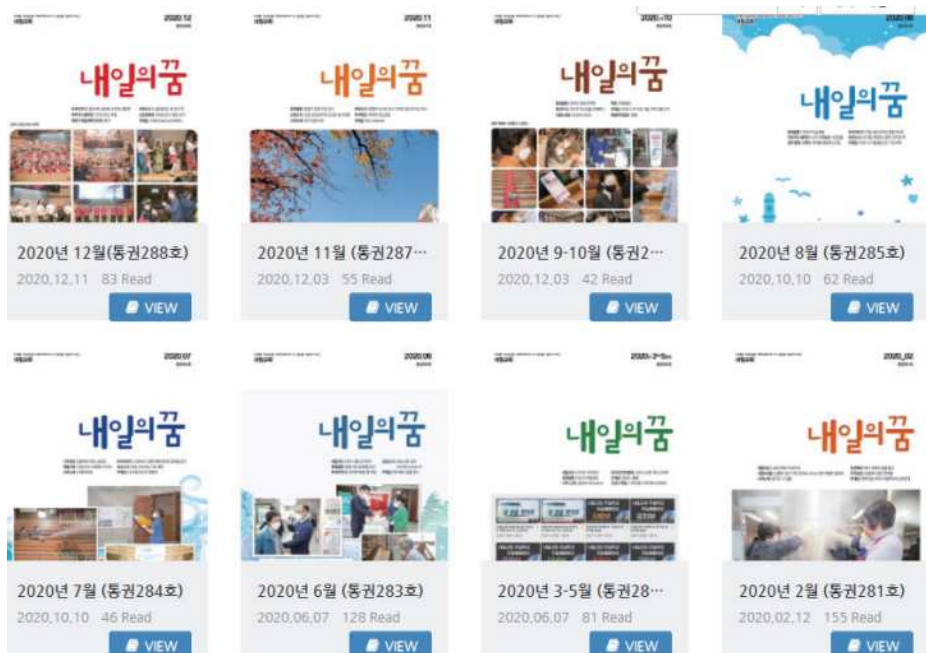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라헬이 아닌 자신이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장사될 것을!!!

압복나루에서의 야곱처럼

복되신 하나님이 이기시는 삶이 되도록

나의 삶을 의탁할 때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루(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내꿈” epilogue 내일의 꿈팀 ○○○입니다!

문서팀 국장 장요한 집사

2020년 ‘내일의꿈’은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던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내일의꿈’ 섬긴 지 8년의 시간 동안 한 해에 합본이 2번(3-5월호, 9-10월호)이나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정이 있지만 두 달의 콘텐츠 발굴해서 합본으로 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빛 진 것 없이) 글 독촉에 어려움을 겪으신 성도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성도님의 한 글 한 글이 모였기에 한 편의 책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또다시 1월호와 2월호를 합본으로 간행

하게 되었다. 또다시 면목 없이 여러 성도님들께 글을 독촉해야 할 듯합니다. 2021년 ‘내일의꿈’이 교회와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 가정과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새해를 향한 성도님의 새로운 꿈과 기대가 ‘내일의꿈’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박민수 집사

토요일 오전, 아버지로부터 오후에 참깨를 털러 시골로 오라는 호출이 왔다. 바짝 마른 참깨대를 막대기로 털 때마다 쏟아지는 참깨를 보며 생각했다. 콩알보다도 훨씬 작은 참깨 한 알에 얼마나 많은 것

을 머금고 있길래 참기름이 되는지.

2020년 코로나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쥐어짜도 한 방울의 기름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합본을 제외하고 매월 내꿈을 발간하였다. 그것도 향기로운 냄새와 고소한 맛까지 겸비한 것으로 말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따뜻한 햇볕과 비를 맘껏 흡수하여 알찬 참깨가 되어 주신 내일의 성도님들에게 감사로, 이를 소중하게 내꿈 지면에 담아낸 내꿈팀의 저력에 박수를 보낸다.

윤명화 집사

2020 어지럽고 아쉬운 한해 속에도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한 새해를 허락하셔서

이제는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예배하고 모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박혜선 집사

모두가 힘든 시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여전히' 애쓰시는 내일 가족들의 모습을 좀 더 담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2021년에 문턱이 낮은 내꿈에 더 많은 내일 가족들이 문을 두드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뇨, 저희가 두드릴 테니 문 열어주시고 내일의꿈 무대를 빛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이은홍 집사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영화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 내일의 꿈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면이 하나둘씩 채워져 발행되었습니다.

더욱 악화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2021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올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희망과 감사로 내일의 꿈이 채워질 것이라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김선영e 집사

그래도 절기와 계절을 따라 매월 찾아 인사드리는 지면인데, 새해 1호 인쇄물이 오늘 내일 하다 신년을 지나 입춘도 지나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 기막힌 현실! 부디 2월에 와서 지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며 지난 돌아보기를 하고 묵은 이야기를 꺼내고 때 지난 신년인사를 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잊지 않으시고 챙겨 주시는 소리 없는 응원과 관심에 막바지 열심을 또 내어 봅니다.

간밤의 어둠을 밀어내는 부드러운 돌을벌처럼 땡하진 않아도 늘 잔잔한 빛으로 힘차게 기대되는 그런 내꿈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지난 한 해의 감사를 담아 합본을 엮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족한 손길을 모아 또 어찌 쓰실지 기대합니다!

강혜령 집사

12년.....

내일의꿈과 함께 자라갑니다.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보게 하시고 저도 푸름이 잘 유지되길 소망합니다.

권지영 집사

2020년은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로 보낸 한해였기에

2021년에는 다른 일들보다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챙기고, 사랑하는 이들 잘 돌보며, 하루하루 알차게 채워보려 노력중입니다. 늘 나만 잘하면 되더라구요.

저의 #2021키워드는 #행복 #일상력 챌린저입니다.

이제 암송도전한지 4일차, 운동시작한지 겨우 12일, 차박여행도전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전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가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한 예배 준비



대한예수교장로회 **내일교회** NAE-IL PRESBYTERIAN CHURCH
427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동로 212 (장동)
TEL.(053) 587-2121 FAX.(053) 587-2124 <http://naeil.or.kr>

새벽기도회 1부 새벽4:50 / 2부 새벽5:50 | 주일1부예배 오전7:30 | 주일2부예배 오전10:00 | 주일3부예배 낮12:00
청년2부예배 오후2:00 | 청년3부예배 오후2:00 | 주일오후예배 오후3:10 | 수요기도회 저녁7:30 | 금요기도회 밤8:30
영아부 오전10:00 | 유치부 1부 오전10:00, 2부 낮12:00 | 유년부 1부 오전10:00, 2부 낮12:00 | 초등부 1부 오전10:00,
2부 낮12:00 | 중등부 오전10:00 | 고등부 오전10:00 | 사랑부 낮12:00 | 내일플러스 오전10:00, 낮12:00, 오후2:00